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6월 29일
(월요일)

강북신문 5면

◆5분자유발언- 강북구의회 유인에 의원

“한전주 지중화하여 예산절감 필요하다”

유인에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공사 구간중 일부구간에서 한전주 등 지장물을 지중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 의원은 2009년 9월15일 첫 공사가 시작된 우이~신설선 지하 경전철 사업현황을 밝혔다.

우이~신설선 지하 경전철은 우이동에서 정릉, 성신여대입구, 보문역을 거쳐 신설동에 이르는 총길이 11.4km의 지하 경전철로 총 사업비 6,465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다.

일부 문제로 인해 공사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2014년 9월12일 서울시와 우이신설 경전철 주식회사가 분쟁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공사기간을 26.5개월 연장하여 2016년 11월30일 공사완공을 목표로 현재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유 의원은 “경전철 공사로 인한 영업권 보상의 문제와 소음, 진동, 균열 등의 문제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지만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해당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경전철 공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중화 사업’



유인에 의원

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지중화 사업은 지상에 나와 있는 송전탑을 대신해 선로를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으로 매설하는 작업으로, 2중 굴착에 따른 예산절감과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등 많은

장점이 있어 지중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많은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호응 속에 지중화 사업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3년 기준 서울시 각 자치구의 지중화사업 평균 완료율은 88.2%이며 강남3구 약 90%에 비해 강북구는 약 60%로 서울시 평균으로 봤을 때도 한참 못 미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유인에 의원은 “우이~신설선 지하 경전철 공사구간 중 강북구 관내 지역인 1공구 구간에서 3공구 일부 구간까지 이르는 지역에 대하여 한전주 등 지장물을 지중화하여 2중 굴착에 따른 예산절감과 도시미관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동북일보 4면

우이경전철 1~3구간 지장물을 지중화 해야...

유 인 애 의원

(새누리/번1·2동, 수유2·3동)

유인에 의원은 지난 22일 강북구의회, 제19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우이~신설선 지하 경전철 지중화 사업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2009년 9월 15일 많은 구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첫 공사가 시작된 우이신설선 지하 경전철은 우이동에서 정릉, 성신여대입구, 보문역을 거쳐 신설동에 이르는 총길이 11.4km의 지하 경전철로 총 사업비 6,465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며, 한때 일부 문제로 인해 공사가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지만 2014년 9월12일 서울시와 우이신설 경전철 주식회사가 분쟁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공사기간을 26.5개월 연장하여 2016년 11월 30일 공사완공을 목표로 현재도 공사가



▲ 유인에 의원.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유 의원은 “경전철 공사로 인한 영업권 보상의 문제와 소음, 진동, 균열 등의 문제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지만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해당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안다”라며, “경전철 공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중화 사업을 제안한다”고 하였다.

지중화 사업은 지상에 나와 있는 송전탑을 대신해 선로를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으로 매설하는 작업으로, 2중 굴착에 따른 예산절감과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등 많은 장점이 있어 지중화 사업의 필요성과 효

과성에 대해서 많은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의 호응 속에 지중화 사업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며, 지금은 지중화사업 완료율이 보다 높아졌을 것으로 보여지나 2013년 기준 서울시 각 자치구의 지중화사업 평균 완료율은 88.2%이며 강남3구 약 90%에 비해 강북구는 약 60%로 서울시 평균으로 봤을 때도 한참 못 미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우이 신설선 지하 경전철 공사구간 중 우리구 관내 지역인 1공구 구간에서 3공구 일부 구간까지 이르는 지역에 대하여 한전주 등 지장물을 지중화하여 2중 굴착에 따른 예산절감과 도시미관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집행부 의견과 지중화 사업과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서면 답변을 요구하였다. (박은주 기자 jeji718@naver.com)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5분 자유발언

우이~신설선 지하 경전철 지중화 사업추진해야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은 6월 22일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이~신설선 지하 경전철 지중화 사업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유 의원은 먼저 “2016년 11월 30일 공사 완공을 목표로 현재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고 밝히고 경전철 공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중화 사업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지중화 사업은 지상에 나와 있는 송전탑을 대신해 선로를 눈에 보이

지 않는 땅속으로 매설하는 작업으로, 2중 굴착에 따른 예선절감과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등 많은 장점이 있어 지중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많은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호응 속에 지중화 사업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하고 우이~신설선 지하 경전철 공사 구간 중 우리구 관내 지역인 1공구 구간에서 3공구 일부 구간까지 이르는 지역에 대하여 한전주 등 지장물을 지중화하여 2중 굴착에 따른 예선절감과 도시미관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어떠한지와 지중화 사업과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